

프랑스 건축 거장의 가구, 인도로 간 까닭

9 May, 2016 | 한은화 기자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의 건축 인생 종착지는 인도 북서부 도시 찬디가르였다. 둘은 새 도시의 건물과 가구를 디자인했다. [사진 국제갤러리]

프랑스 건축 거장의 가구, 인도로 간 까닭

르 코르뷔지에, 사촌 잔느레 협업
말년 바친 건축과 가구 디자인
서울 소격동서 29일까지 전시

인도 북서부 편자부 주의 계획도시, 찬디가르에 가면 잔느레라는 성을 가진 두 명의 프랑스 건축가의 명성이 자자하다. 찬디가르는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새 출발을 기념해 만든 행정도시다. 우리로 따지면 세종시와 기능이 같다. 인도 정부는 51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를 사촌지간인 두 건축가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와 피에르 잔느레에게 맡겼다.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는 근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본명이다. 코르뷔지에는 사촌과 함께 자신의 건축인생 말년을 찬디가르에 쏟아부었다. 국회의사당·고등법원 등 주요 행정건물을 설계했고 가구도 디자인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실용적이면서 세련되게 만들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951-66'에서 두 거장의 마지막 협업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코

르뷔지에가 65년, 잔느레가 이듬해 사망하면서 찬디가르 프로젝트는 끝났다.

두 건축가는 습하고 더운 인도의 기후에 맞춰 건물 및 가구가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하는 데 힘썼다. 모든 건물 앞에는 배란대를 두고, 현관에는 별도 지붕을 설계했다.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구도 마찬가지다. '켁거루 의자'는 등받이와 좌석 부분을 대나무로 엮어 제작했다. 인도의 전통 공예기술을 응용했다. 유독 높이가 낮은 가구가 많은데 인도의 하층 계급사람들이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것을 고려했다.

지금에서야 찬디가르 프로젝트의 산물들이 인도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방치됐었다. 많은 가구들이 뿔감으로 사용됐다.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본 프랑스 딜러들이 인도로 와서 가구를 대량으로 사가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찬디가르 가구 시장이 형성됐고 가구들의 몸값이 점점 올라갔다. 갤러리 측은 "이 사실을 안 인도 정부가 뒤늦게 딜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했다"며 "찬디가르에 남은 작품들은 현재 판매가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5월 29일까지.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